

가계내 재산상속 행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 Ethnographic 접근 방식을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f Household Inheritance Based on Ethnographic Approach*

동국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박명희
동국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강사 정주원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Professor : Myung-Hee, Park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Lecturer : Joo-Won, J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재산상속 행동과 태도 |
| II. 재산상속에 관한 기존이론과 연구들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familial and economic problems(household-financial management) came out as a result of inheritance in household with a qualitative Ethnographic interview analysis method. As a result of interview, we found out three results; first, inheritance consciousness, attitude of predecessor(parents generation) second, the changes in familial economic relationship by inheritance stages (pre-inheritance stage, inheritance progressing stage, post-inheritance stage) third, the emotional changes of predecessor(parents genera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importance and influence of household inheritance, therefore, the necessities of definite and systemic old-aged plan with financial management of inheritance should be introduced.

* 본 연구는 동국대학교 전문학술지 논문게재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서론

최근에 재산상속의 경제적 의미와 가족구성원간의 소득 불평등성 및 자산 분배에 대해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느 사회에 있어서도 경제단위의 소유자는 재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상속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상속은 주로 가족생활주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행해지는 가계제정관리의 한 형태로 상속의 시기, 내용, 방법 등에 따라 피상속인(부모세대)의 노후생활 뿐 아니라 타 가족원들의 생활전반에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과거의 가치관에 의하면 부모의 재산이 자녀의 재산이 되고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효의 근본으로 당연하게 여겼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특히 장남)에게 지위승계(호주권)와 함께 재산을 승계(주로 토지를 중점적으로) 하였으며, 호주권과 재산을 상속받은 이는 가족원에 대한 부양과 의무, 조상에 대한 제사 의무 등을 행하였다(김주수, 1960; 최재석, 1986; 양희수, 1967).

그러나, 근대화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과 함께 핵가족화가 되면서 가족구조나 가족성원간의 인간관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어 과거와 같이 가족간 강한 혈연 유대관계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보다 부모가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식이 많아졌으며, 자녀 또한 부모 부양의 의무와 조상제사에 대한 의무의식이 조금씩 희석되고 있다(여중철, 1980; 한남제, 1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속은 그 변화의 속도가 완만하여 많은 연구결과에서 여전히 자녀에게로 재산이 이전되는 세대간 재산 증여 및 상속이 나타나고 있다(최재석, 1986; 박부진, 1994; 문영소, 1996; 배종열, 1997).

즉 우리 나라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노후설계책은 축소화하거나 소홀히 하는 반면, 자녀의 교육과 결혼, 분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해서라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빚을 지는 등 자녀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으며(박재간, 1990), 재산상속에서도 자녀에게 많은 부분을 이전하고 있는 것이다(배종열, 1997).

국세청에서 발표한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추이에 의하면 1997년 증여를 한 인원은 34,150명으로 증여 재산가액은 3조 2천억원 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사후 상속 인원은 2,805명으로 상속 재산가액이 3조 6천 5백억원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후상속과 증여를 포함한다면 연간 약 7조원 가량의 재산의 세대간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 나라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증여 및 상속을 통해 자산을 이동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가계내 세대간 재산상속은 사회구조내에서 가족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현존하는 사회계급구조내의 사회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Sussman, 1970). 또한 자녀들의 안정된 사회경제적 생활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어 자녀들의 바람직한 재산증식과 관리능력 배양이라는 긍정적 결과를 유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 반해 부정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가족간 재산상속제도는 부의 세습화를 이루어 사회경제 구조적 측면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한다(이효재, 1988). 또한 가계내 재산상속에 따른 불만족으로 가족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며, 그 결과로 피상속인(부모세대)의 지위 및 권위 하락과 노후생활의 불투명, 상속인(자녀세대)의 소비성향 증가(Mark, 1997) 등 부정적인 결과를 조장할 수도 있다.¹⁾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이유로 재산의 사회환원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자는 운동도 일부에서 일고 있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사회환원하기 보다는 자녀 세대에게 상속하고자 하는 부모세대의 의지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다. 뿐만아니라 전통적으로 부모세대의 경우 아직도 자신의 재산을 자녀세대에게 상속하므로서 가계를 계승하고자 하는 의식이 높다. 자신의 재산이 사후 상속되는 경우 상당부분이 세금을 통해 국가에 귀속되기도 하지만 이처럼 세금

1) 본 연구에서 피상속인이라함은 상속을 실시하는 주체인 부모세대를 말하며 상속인은 상속의 수혜자인 자녀세대를 의미함

을 통한 재산의 국가귀속을 피하기위해 사전상속을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상속시 분배의 차등화로 인해 일어나는 가족내 갈등또한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가족내 재산상속에 따른 분배의 방식과 적절한 분배의 시기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의사결정의 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배의 방식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이 누구에게 얼마만큼 주어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상속분배방식의 결과에 따라 가족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가시화되는 것이며, 분배의 시기란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시기로서 상속의 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위와 상속인의 사회경제적 적응, 부모-자녀간의 유대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재산상속에 관한 의사결정이 가계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재산상속 의사결정에 대한 파악이 가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계 내에서 재산상속이 가지는 의의를 알아보고 재산상속이전에 의해 나타나는 가계 내 변화 현상들을 Ethnographic 면접을 통해 심도있게 파악해 보고자 한다. 즉 질적연구를 통해 나타나는 재산상속에 관한 담론들은 개인이나 가계가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재산상속계획 및 재산 상속액을 결정하는데 있어 참고가 될 것이며 가계의 재정문제 및 가족문제를 상담하는 재무상담가와 가족문제상담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가계의 재산 상속이전에 관한 상류층의 불법적 상속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가계내 재산상속이전시 나타나는 가족원간의 갈등 구조파악은 상속에 관한 기존 담론이 가진 문제점을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전통적이고 가부장적 가계상속문화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데 필요한 방향을 제시함에 그 의미를 찾고자 한다.

II. 재산상속에 관한 기존이론과 연구들

상속이란 용어는 'succession' 과 'inheritance'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뉘앙스의 차이에 의해서 전자

를 '지위의 승계' 후자를 '재산의 승계'로 하여 구별하고 있다(신영호, 1987). 그 중에서 'inheritance' 즉 재산상속은 특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중요한 승계제도로서 어떠한 형태의 상속에 있어서도 재산의 승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김엘림, 1991).

서구의 연구들에서 가계내 세대간 재산상속동기이론의 대표적인 것은 전략적 유산상속동기이론(the strategic bequest motive theory), 이타적 유산상속동기이론 (the altruistic bequest motive theory), 우발적 유산상속동기이론(the accidental bequest theory)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략적 유산상속동기이론(Bernheim et al. 1985; Bernheim and Stark, 1988)은 가족내 재산상속이 부모가 자녀로부터 현재 내지 미래의 서비스 대가를 얻기 위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부모는 자녀로부터 관심과 지원을 받기 위해 자신의 소유 자산을 제공하고 자녀는 더 많은 상속을 받기 위해 부모에게 시간적 서비스 즉 방문 및 전화연락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즉 부모의 효용은 부모의 소비와 자녀의 행동함수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부모가 자신의 효용을 최대화 하려면 자신의 소비로부터 효용을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부모들은 핵가족화, 도시화 등의 사회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자녀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약화되었으며,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부모가 소유한 재산이므로, 부모들은 자신의 재산상속 분배시기와 분배방식에 의해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유산동기이론은 서구사회의 경우 상당히 설득력있게 평가받고 있다.

이타적 유산상속동기이론(Becker, 1974; Becker 1991; Becker and Tomes, 1979)은 부모가 자신의 소비효용뿐 아니라 자녀들의 소비효용을 위해 자산을 저축하고 자녀들에게 교육이나 증여의 형태로 인적 자본투자를 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가계내 재산이전을 가족원간 소득균등화 기제로 보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가계내 재산이전은 가족원간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족원의 효용은 자신의 소비와 다른 구성원의 효용함수로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족구성원 중 재산이 많은 이로부터 재산이 적은 이에게 재산이전이 이루어져서 가족원간의 소비효용을 균등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우발적 유산상속동기 이론(Hurd, 1987, 1989)은 사망시기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죽음에 대한 위협을 회피하고자 재산을 축적하지만 사망시기가 불확실하여 계획없이 재산상속을 남기게 된다는 이론이다

이상의 유산상속동기이론들을 통해 가계내 재산상속은 가족관계와 경제관계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재산상속이전은 가계내의 경제력의 분배 및 가족유대관계 변화에도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내 세대간 재산상속은 사회구조내에서 가족의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현존하는 사회계급구조내의 사회의 안정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Sussman, 1970).

반면에 가계내 재산상속에 따른 불만족으로 가족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며, 그 결과로 피상속인의 지위 및 권위 하락과 노후생활의 불투명, 상속인의 소비성향 증가(Mark, 1997) 등 부정적인 결과를 조장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산상속연구는 주로 인류학자나 사회학자에 의해 법학적, 사회학적, 역사적, 가족학 측면에서 이루어졌다.(최재석, 1986 한남제 1997, 이효재 1988, 손병동, 1998, 신영호 1987) 연구의 결과들은 주로 재산상속의 분배과정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것이며 재산상속실태조사는 농촌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도시가족에 대한 연구(문영소 1996; 배종열 1997)는 일부에 그치고 있다. 가족간 재산상속제도는 부의 세습화를 이루어 사회경제 구조적 측면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한다(이효재, 1988)는 사회학적 분배론의 시각을 가진 연구들이 있다. 연구접근 방법면에서 보면, 기존연구들은 거의 단편적인 면접기법을 이용하거나 설문지법을 이용한 실증적(정량적) 연구로 이

루어져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해 재산상속에 관한 전반적인 경향에 관한 결과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실증적인 연구기법이 가지는 한계로 인해 재산상속에서 나타나는 가족내 미묘한 감정의 표출이나 상속결과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 가계재정문제에 대한 복합적인 가계내의 문제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즉 재산상태나 상속에 관한 금전적인 사항에 대해 타인에게 응답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에 실증적인 연구기법으로는 재산상속이전에 대한 파악이 힘들 것이며, 특히 재산상속이전으로 인한 가족원간의 갈등구도와 가족관계변화 그리고 부모와 자녀세대의 가계재정적인 변화를 알아보기에는 질문지법이나 단시간의 면접법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가계내 재산상속이전을 통해 나타나는 가족문제와 가계재정관리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질적인 연구기법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계내 재산상속이전을 경험한 피상속인을 대상으로 심층적 면접방법인 Ethnographic 면접기법을 채택하여 가계내 재산상속의 실행과정과 재산상속이전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계내에서 재산상속 의식 및 실행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재산상속에 의해 변화되는 현대 가족내 가족관계(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형제관계 등)와 가계재정(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가계재정변화)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탐색적 연구방법으로서의 Ethnographic면접

본 연구는 가계생활주기 중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계재정관리의 한 부분인 재산상속에 대해 파악하고자 탐색적이고 심층적인 Ethnographic 면접기법을 채택하였다. Ethnographic 면접기법은 주로 인류학자들에 의하여 사용되어 왔는데, 전혀 사전지식(prior knowledge)이 없는 종족이나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간주

되어 왔다. 즉 Ethnographic 면접기법은 연구자의 관점으로 연구가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informant라는 면접참여자의 관점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면접참여자와 연구자가 함께 연구를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James P. Spradley, 1979)

기존의 면접기법에서처럼 연구자에 의해 미리 준비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 면접참여자가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된다. 면접자의 질문방식도 연구자의 문화적 지식이나 용어를 기초로 하지 않고, 가능한 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Ethnographic 면접기법은 기존의 면접기법에서처럼 연구자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연구자 단독으로 연구의 모든 배경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와 면접참여자가 함께 연구를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thnographic 면접은 Lincoln & Guba(1985)가 제시한 자연주의적(naturalistic) 연구방법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실증주의자들(positivists)의 관점과는 접근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있다(유창조, 1994).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가계내 재산상속이전이라는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피상속인의 상속태도와 동기, 상속으로 인한 가족갈등 및 가족관계의 변화, 그리고 감정의 변화 등 재산상속으로 인한 전반적인 결과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실증적(정량적)인 연구방법보다는 질적연구방법이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어 Ethnographic 면접방법을 본 연구의 조사기법으로 선정하였다.

2. 면접자의 선정

본 연구에서 Ethnographic 면접을 위해 2명의 면접참여자(informant)를 선정하였는데, 면접참여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접참여자는 연구주제에 문화화(through enculturation)되어 있어야 한다. 면접참여자가 연구의 주제가 되는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을수록 좋다는 의미이다. 둘째, 면접참여자는 현재 어느 정도 관여되어 있는 상태(current involvement)에 있어야 한다. 즉 면접참여자가 현재 문화적 상황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면접 참여자는 면접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면접이 일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약 30분 넘는 시간의 면접이 5회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넷째, 면접참여자는 가급적 비분석적(nonanalytic)일수록 좋다. 이는 어떤 개념이나 상황을 설명할 때 자신의 분석적 틀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면접 참여자보다는 개념이나 상황자체를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면접참여자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James P. Spradley, 1979)

위의 선정기준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최근 가계내에서 세대간 재산상속이전을 경험한 60대 남자를 면접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이들의 가족원은 배우자 및 아들, 딸로 구성되어 있

<표 1> 실증주의 원리와 자연주의 원리의 비교

원 리	실증주의 접근방식	자연주의 접근방식
현실에 대한 인식	현실은 하나이고 유형이고 분리되어질 수 있으며 분리된 것을 분석할 수 있다.	현실들은 복합적으로 구성되어있고 분리될 수 없으며 전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연구자와 연구대상의 관계	연구자와 연구대상은 독립적	연구자와 연구대상은 상호의존적이며, 분리될 수 없다.
일반화의 가능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일반화가 가능하다.	단지 시간과 공간에 속박되어 있는 일시적인 가설만이 가능
인과관계의 가능성	원인과 결과는 시간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가치기준의 역할	연구는 가치기준과 관계없이 이루어진다.	연구는 가치기준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표 2〉 면접자의 특성

	면접자 A	면접자 B
연 령(세)	69	67
직 업	기업의 중역으로 근무 후 정년퇴임, 현재는 여가생활 즐김	중소기업체를 운영
가족관계	배우자, 2남 2녀 (자녀 모두 결혼)	배우자, 2남 2녀 (자녀 모두 결혼)
학 력	대 졸	대 졸
상속 전 자산정도	토지, 집 2채, 주식, 현금 보유	회사지분, 토지, 집 2채, 주식, 현금 보유
상속전 가족 유대 관계	화목한 편	보통이나 표면적인 문제 없음

으며, 면접참여자는 최근 재산상속이전을 행한 후로 상속문화에 완전히 문화화되어 있었고, 수 차례의 면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어떠한 상황이나 질문에 대해 분석적인 틀을 제시하며 답변하기보다는 자신의 재산상속경험을 설명하며 이야기를 하는 비분석적 면접자들이다.

3. Ethnographic 면접과정

본 면접은 1999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두 달간 각각 5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각 면접과정은 Spradley (1979)가 제시한 단계별 면접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면접에서는 우선 면접참여자의 긴장을 완화하며 유대를 형성하기 위해 일상적인 질문과 함께 기술적인 질문(descriptive question)을 하여 (예: "재산상속을 하며 일어났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면접참여자가 재산상속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유도하였는데, 이 결과 재산상속에 관한 대략적인 연구주제가 설정되었다. 즉 재산상속을 통해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와 가족간의 갈등 그리고 특정화된 상속태도와 동기 등이었다.

두 번째 면접에서는 기술적인 질문과 함께 구조적인 질문(structural question)을 함으로써 각 주제에 대한 기본정보를 발견하였으며 (예: "재산상속시 느끼신 감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서는 비교적인 질문(contrast question)을 함께 병행함으로써 각 영역에 대한 차이

〈표 3〉 각 면접자와의 Ethnographic 면접과정 및 질문예시

면접단계	면접내용	구체적 질문 예시
단계 1	면접참여자선정	
단계 2	첫번째 면접 (일상적, 기술적 질문) Ethnographic기록분석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상속은 언제쯤 하셨는지요?, 재산상속 하며 일어났던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등
단계 3	두번째 면접 (기술적, 구조적 질문) 영역(Domain) 분석	지난번 인터뷰에서 상속하시며 느낀 감정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재산상속시 가족으로 힘들었다고 하는데, 어떤것들이 힘들었는지요?
단계 4	세번째 면접 (비교적 질문) Taxonomy Analysis	상속하시면서 감정의 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상속전과 상속후의 감정은 어떻게 다릅니까?, 자녀분들의 왕래가 줄었다고 하셨는데, 상속전과 상속후를 비교해보시면 어떠신지요?
단계 5	네번째 면접 (비교적 질문) 구성요소 분석	가족간의 갈등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상속전과는 가족사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요?, 상속후에 상속에 대한 선생님 생각이 달라지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달라지셨는지요?
단계 6	다섯 번째 면접 (재확인·정리 질문) 문화적 테마 발견	지난번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상속을 통해 느끼신 점이(..... 이런게) 맞으신지요?, 자녀분들과 부인에 대한 상속양이나 상속내용에 대한 생각이(이러 이리...)하십니까?
단계 7	Ethnographic 기술	세가지 연구 결과 파악: 재산상속시 부모세대의 태도, 상속으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 부모세대의 감정변화

점과 의미를 확인할수 있었다(예: “지난번에 말씀 하셨던 상속 전 감정과 상속 후 감정은 어떻게 다릅니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면접에서는 각 주제별 영역들의 관련성에 대해 질문을 함으로써 면접참여자의 각 주제에 대한 체계적인 재확인을 하였다.

IV. 재산상속행동과 태도

1. 재산상속에 대한 피상속인(부모세대)의 태도

1) 상속인의 범위

피상속인은 재산상속시 상속인 범위 선정에 있어 아들 중심의 국한적인 태도를 보이며, 배우자나 딸은 직접적인 상속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배우자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노후대책 한 부분으로 여김으로써 상속이라는 의미보다는 배우자에 대한 노후대책마련과 고마움의 표시의 의미로 대체되고 있으며,

“우리 마누라야 내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으로 조금 있는 돈으로 같이 쓰면 되고, 내가 죽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살던가, 아니면 집을 처분해서 아들네로 가겠지, 그게 상속이라면 상속이지. 부부간에 뭐 상속이니 할게 있나.” “마누라한테 상속을 한다? 그말이 조금 그래, 한평생 살아온 마누라한테 상속은 무슨 상속, 그저 앞으로 살아갈수 있는 병들어 치료할수 있고, 죽을때까지 살수 있는 돈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지. 상속이라고 말하긴 좀 거창하네.”, 딸에 대한 상속의 의미는 교육과 결혼자금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딸들이야 교육시켜주고 시집보내줬으면 된거지. 따로 주긴 뭘 줘. 시집갈 때 다 챙겨줬으면 됐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옛날 처럼 그냥 시집보낼수 있나? 조금씩 보태주지 않고 어떻게 시집보낼수 있어? 며느리 보는 것도 힘들지만 사위보는것도 쉽진 않아. 그때 들어간 돈도 무시 못해. 그걸로 딸한테는 부모노릇 다 한거지. 좋은 짝 만나게 해줘, 갈 때 남부럽지 않게 해서 시집보내 그럼 된거야, 그게 바로 상속이지.”)

그러나, 아들에 대한 상속의 의미는 교육과 결혼자금, 사업자금의 원조와는 상관없이 재산상속의 직접적인 주 상속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아들은 교육시켜주고, 장가보내고, 생활비가 부족하다 해서 생활비 보태주고, 병원 개업할 때 개업자금 마련해주고 많이 들었지. 어디까지나 아들은 아들이고 딸은 딸인 거야. 상속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집안을 이끌어가고 중심이 되는 아들이 받게 되는게 제일 좋은 거야. 마누라, 딸들까지 나서서 재산 받겠다 하면 집안이 정말 뒤흔어.”).

즉, 재산상속의 직접적인 대상자는 아들 단독 상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 가족원들은 직접적인 상속인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지 않고 상속이라는 의미가 다른 형태의 의미(노후대책자금, 교육·결혼자금 등)로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재산상속이라는 규정적인 경제적 분배 절차에서는 딸의 상속분이 제외되거나 축소되어지나 자녀의 인적투자(교육 및 유학자금)나 지원부분(결혼자금, 주택자금)에서는 딸에 대한 차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으로 인해 여성에 대한 인적투자 및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일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여유있는 가정에서 인적투자나 지원부분등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상속분과 상속내용의 차등

재산상속의 상속인 대상에서 직접적인 상속대상인 아들에 대한 상속분 중에서도 장남과 차남에 대해서는 각각 다른 상속분이 배분되어 상속분의 차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장남과 차남의 상속분 차이는 집안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영향을 끼칠 만큼 그 의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면접 결과, 피상속인은 장남에게 차남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주었으며, 상속내용면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중 있고 중요한 부분을 장남에게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큰아들한테는 땅이랑 주식을 주고, 작

은아들한테는 조그만 집 한 채 있었는데, 그걸 줬지.” “회사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을 큰아들 명의로 해줬지. 회사지분은 앞으로 누군가 맡아하더라도 계속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기 때문에 다른 재산하고는 조금 다르지. 이걸 큰아들 앞으로 해 줬더니 작은아들이 펄쩍 펄쩍 뛰더라구.”

장남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주고, 상속내용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한 상속내용을 상속한 이유로는 첫째, 장자 우대 사상으로(“우리나라 정서에 재산은 장남에게 가는데 당연지산인데, 그걸 거스르면 문제가 더 심각해 진다고.... 그리고 장남이라는 자리는 그만큼 고되기 때문에 대우를 받아야 하는거야.”) 둘째, 자신과 부인의 노후를 의탁하기 위해서(“부부 중 누가 먼저 죽거나 병들면 아무래도 자식 신세를 안 받을수 없잖아?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기댈곳이 큰아들이 마음 편하지, 그러니 큰아들한테 더 신경을 써야지.”) 셋째, 상대적으로 차남보다 장남이 자산관리면에서 안정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다른 재산이야 뭐서 없어도 그렇지만 회사는 내가 어떻게 만든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 어떻게 만들고, 이루어 낸 회산데 상속을 잘못해서 하루 아침에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 그나마 나는 자식에게 주는게 낫지.” “이왕이면 내가 일구어낸 재산 든든한 아들에게 맡기고 싶어. 재산을 줬을 때 앞이 불안한 자식보다야 안정적인 자식이 안 낫겠어?”)

첫째의 장자 우대사상은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가치관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계를 계승하는 부계의 원리에 순응하고 동화하려는 사회의식적인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자신과 부인의 노후를 의탁하기 위함이란 상속할 자산을 통해 피상속인이 미래의 효용성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즉 재산상속이 자녀들로부터 현재 내지 미래의 보다 직접적인 효용인 부모 부양 및 노후 의탁을 받기 위한 하나의 교환수단이 되는 것이다. 이는 가계내 재산상속동기이론 중 전략적 유산동기이론의 실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자녀에게 부모 부양, 노후의탁이라는 책임감을 재산 분배를 통해 더 확고히 심어주는 것이라 볼수 있다.

셋째, 상대적으로 다른 자녀보다 장남이 자산관리면에서 더 안정성이 있다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 상속할 자산에 대한 미래의 안전성을 판단하여 가장 투자 위험률이 적은 자녀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 입장에서 상속할 재산이라는 것은 금전이상의 의미인 맘, 정성, 인생이 감정이입되어 함축되어 있는 복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재산은 돈 이상이야. 그 사람의 삶이 들어있는 거야. 내가 쏟아 부었던 맘과 정성, 혼이 담긴 세월이 들어있는 거라고.”). 그러므로, 이러한 자산을 미래에도 안정되게 관리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재산의 중요도에 따라 분배에 차등을 두게 되었는데, 재산상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 즉 부모세대에 있어 가장 애착이 가는 재산내용은 투자 위험률이 적은 자녀에게 상속을 하고, 재산상 중요도가 보통인 것은 아들들에게 적절히 나누어 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면접 결과에서는 장남이 차남보다 직업적으로나 자산관리면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부모가 장남에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상속내용에 해당하는 더 많은 상속분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례의 경우에 즉 차남이 자산관리면에서 더 안정적인 것으로 여겨졌을 경우의 상속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상속동기에 대한 이해가 더 명확해 질 것이다.

3) 재산상속 후 상속시기와 상속방법에 대한 태도 변화

면접자들이 미리 사전(死前)에 재산상속이전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자신의 의지대로 상속을 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상속 결과, 상속 시기면에서 사전상속에 대해 후회 (“너무 쉽게 재산을 넘겨주지 않았나 싶더라고.... 다시 상속하게 되면 미리 상속 안 해. 죽을때까지 가지고 있을거야. 죽을 때 이렇게 하라고 유언으로 남기지 미리는 할 생각이 없어.”)를 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상속시기와 상속방법에 대한 생각이 사전상속보다는 임종직전 유언상속을 권장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전상속을 후회하게 된 이유로는 상속을 통해

나타나는 가족간의 갈등("장남에게 많은 재산이 가니까 집사람과 작은 아들이 불만을 토로했지. 한동안 이야기도 하지 않고, 집사람은 작은 아들로 집을 나가고.... 여하튼 많이 힘들었어.")과 부모의 권위 및 세력의 약화, ("상속하고 나니 확실히 권력의 위치가 달라져. 권력이라 하니 우스운데, 부모로서 힘이 없어지더라구, 이제는 자식놈들이 우리보고 따라오라고 해. 진짜 노인이 된 것 같아."), 그리고 자녀들의 무관심("상속을 하고 나니 아예 을 생각을 안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병원에 가는지, 몸은 어떤지 이젠 별 관심이 없어. 이젠 더 이상 상호관계가 없어지는 것 같아. 자식들도 자연히 뜬해 지고, 오히려 부모를 이젠 노인 취급하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상속시기를 사전에 하는 것 보다 임종직전에 유연상속을 하고 싶다는 의견은 부모의 입장에서 상속을 통해 경험되는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입장에서 상속시기를 연기하려는 것을 부모의 권위 및 세력의 유지,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는 경향, 그리고 가족간 갈등 소지의 회피와 관련해서 해석할 수 있다. 즉 재산분배를 미리 하기 보다는 재산에 대한 법률적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물질적 재산을 통한 권위유지와 자식들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행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부모로서의 위신을 유지하고 자식들로부터 무관심함을 당하지 않으려는 차원에서 재산의 계속적인 보유를 선택하려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노후에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물질적, 정신적으로 부모세대의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대 가족의 핵가족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장남도 결혼 후 분가하려는 경향이 많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가 미리 재산분배를 마치고 자식들에게 의존하는 것보다는 재산보유를 통해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고자 하는 것이다.

상속을 통해 나타나는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또한 재산상속을 연기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이다. 면접결과에서도 상속으로 가족간의 갈등을 겪으며 부모세대의 심적 부담감과 고통이 피

력되고 있는 바, 가족간의 내재된 갈등이 재산상속을 통해 나타남은 노년기에서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가족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가계의 자산관리와 가족문화측면에서 노년기의 재산상속과 관련된 적절한 상속시기와 상속방법, 상속분의 결정에 대한 교육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4) 법적 상속규정과 사회환원에 대한 태도

면접자들은 법적 상속규정법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실제 상속관행에 있어서는 법적 상속규정법과 다른 실례를 보이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상속내용에 있어서는 장자우대의 불균분상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다른 상속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난 아들우대 중심의 상속이라는 점과 시대별로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

법적 상속규정 내용에 대해 면접자들은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뭐 법적으로 얼마 얼마 하는 거 그거 글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키겠어? ... 재산이 많은 그룹같은데서 가끔 법적 재판까지 간다고 신문에 더러 나오던데, 그런 사람들 한테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우리같은 평범한 일반인들한테야 별 해당되지 않는 법이지. 누구누구한테 얼마를 줘야 한다니 무슨 인생이 자로 재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딱 맞추어 재산을 가르나, 인정머리 없게, 그건 다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거야. 필요한 사람한테 더 주고, 내가 주겠다고 싶은 자식한테 더 주는 거지 뭘 먹을 것 주듯이 똑같이 줘라 하는거 별로 마음에 안들어") 법적 상속규정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였다.

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해서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가족간 자녀상속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혈연지향성이 강한 우리 나라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모르는 타인보다 자녀에게 재산을 이양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사회환원을 꺼리게 되는 다른 이유로는 우리 나라의 사회환원 시스템적 부재와 함께 사회환원 재산 사용에 대한 사회적 불신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사회환원에 대한 생

각은 한번쯤은 해 봤지. 내 재산 그래도 피붙이한테 주는게 낫지 사회에 환원한다는게 별 의미가 있겠어? 도대체 우리 사회를 믿을 수 있어야지.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는데, 많은 재산이야 내 이름으로 의미있게 남겠지만 소시민의 평범한 재산이야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걸 먼저 앞장서서 권력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사회환원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솔선수범하면 믿을수 있는 사회, 정부가 되겠지. 그러면 다른 국민들도 따라서 함께 잘 살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구나 싶어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는 거라고.”), 이를 통해 재산상속의 사회환원 권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뢰감에 바탕을 둔 사회제도적인 시스템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즉 사회환원을 하고자 하는 이가 적절히 손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어지며, 아울러 사회환원에 따른 투명성 있는 국가의 금전관리와 사회환원자에 대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 하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속재산의 사회환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상속을 통해 나타나는 가족관계 변화

1) 상속 전 단계에서의 가족관계 및 가계재정관리 직접적인 상속을 하기 전 가족관계는 상속경험

후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나타났으며, 문제점이 있다하더라도 피상적으로는 크게 노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은 결혼 후 모두 분가하여 따로 살고 있으며, 부모와 자녀간의 왕래정도는 연중 특별한 날(명절, 생신, 제사 등)을 빼고는 직접적인 왕래는 드물며, 대신 전화통화를 통한 접촉이 대부분으로 평소 전화통화 빈도수는 아들보다 딸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자녀들의(장남, 차남, 딸 모두) 집안 대소사일에 대한 관여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과거 대가족체제에서 부모를 모시고 가계를 계승하며 집안 대소사일을 함께 나누었던 가족의식이 많이 희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 할수 있다.

부모의 가계재정관리측면을 살펴보면, 부모는 자녀에게서 일정한 용돈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가계를 운영해 나가고 있었으며,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 후에도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상속을 떠나 교육, 결혼 비용은 물론이고 생활비 지원, 주택마련, 사업준비자금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행해지고 있다.

〈표 4〉 재산상속에 대한 피상속인(부모세대)의 태도 및 이유

상속관행	상속 태도	이유	가족상속법과의 비교
상속인의 범위	아들 위주의 상속 배우자, 딸은 직접적인 상속대상에서 제외	배우자: 노후대책으로 대체 딸: 교육 결혼자금으로 대체	4촌이내의 방계 혈족(처가족도)
상속 분	장남우대 불균분상속	전통적인 장남우대 정서 노후를 의탁하기 위해	배우자: 15 아들, 딸: 1 (장남, 출가한 딸 관계없이)
상속내용	중요도가 큰 재산은 위험도가 낮은 아들에게 상속하고 나머지는 아들에게 골고루 분배	중요 상속 재산의 미래의 안전성을 위해 최소 위험률을 선택	상속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음
상속시기 상속방법	사전상속 후회 → 유언에 의한 임종직전 상속 선호	부모의 권위와 세력유지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기위해 가족간 갈등 소지 막기위해	법적 상속규정법은 사후 유언이 없는 경우에 적용
사회환원에 대한 태도	냉소적인 태도	세대간 가족상속선호 사회환원 시스템 부재 사회적 불신감	

이러한 결과는 본 면접 대상자들이 재산상속을 할 능력이 있는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된 이들이기 때문에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기보다는 보탬이 되어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배종열(1997)의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즉 재산이 많은 경우 자녀에게로 재산이전이 많다는 연구결과와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면접결과, 상속을 하기 전에 피상속인(부모세대)은 재산상속으로 인해 가계내 문제점이 발생하리라는 예상보다는 상속 후 타 가족으로부터의 관심과 대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상속진행단계에서의 가족관계 및 가계재정 관리

상속을 진행하며, 상속 전 드러나지 않았던 가족간의 갈등이 표면화되어 나타났다. 자녀들은 상속전과 달리 특히 아들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모에 대한 왕래 빈도가 많아지며 상속분과 상속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큰아들은 큰 아들 나름대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 하기 바쁘고, 작은 아들도 작은 아들 나름대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다 들어보면 앞으로 돈이 많이 필요 하니 알아서 많이 달라는 거지. 하여튼 많이 찾아오고, 전화도 많이 오고, 관심도 많이 보이더라구.... 솔직히 안 그러다가 그러니 부담스럽더라고.”).

이러한 자녀들의 왕래 빈도에 대한 변화를 통해 자녀의 부모에 대한 관심도가 부모의 상속 가능한 자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Bernheim et al.(1985)와 Maria(1998)의 연구결과인 상속할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가 부모를 자주 방문하거나 전화를 자주 하는 등 자녀의 부모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상속되지 않는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의 관심도는 감소한다는 것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에 대한 관심 즉 효(孝)의 한 부분도 기대되는 부모의 재산상속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속 결정단계에서는 불균분 상속에 대해 부부간의 견해차와 자녀와의 갈등이 가시화 되어 나타나

고 있다. 부부간의 갈등은 부부합의하의 의논된 재산상속결정보다는 가부장 중심의 일방적인 상속결정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상속견해차가 생기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평소의 가계관리와는 달리 재산상속은 주로 가장이 다른 가족원들에게 분배하는 형식으로 취해지므로, 부부간의 공동재산관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부장 중심의 일방적인 재산상속결정은 가족간 특히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들과의 갈등 발생 원인은 장남우대의 불균분 상속 결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차남들은 장남과 같은 상속분과 함께 상속내용에 있어서도 중요도에 차등을 두지 말 것을 요구하며 평소 불만인 다른 감정들을 함께 토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딸은 큰 불만 표시보다는 섭섭함을 표현하며 불균분 상속 결정에 순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부장적 상속문화가 자녀세대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법적으로는 아들, 딸 모두에게 똑같은 상속분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남우대의 불균분 상속에 대해 남·여간 대처행동이 다를 수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다.

가계재정측면에서 볼 때, 피상속인은 상속 결정시 노후의 부부 여유자금을 제외한 후 남은 재산을 상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여유자금에는 생활비를 포함하여 의료비, 취미활동비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구체적인 노후계획하에서 책정된 노후자금이라기 보다는 비계획적이고 임의적으로 산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속 후 상속한 자녀로부터의 일정한 보조금과 함께 노후보장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상속 후 단계에서의 가족관계 및 가계재정 관리

장남우대의 불균분 상속은 가족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고 이 결과 상속 후 가족간의 유대관계 및 가족권력구조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상속결정에 대한 부부간의 견해차로 인한 배우자와의 갈등과 불균분 상속을 받은 자녀와의 갈등은 피상

속인과 타 가족간의 관계소원, 장남과 차남간의 관계 소원, 피상속인의 가계내 상대적 지위 약화라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상속 후 자녀들의 왕래 빈도 변화를 살펴보면, 장남은 상속을 진행하는 당시와는 달리 왕래 빈도가 줄어들어 상속전과 다름이 없으며, 불균분 상속으로 불만을 표시한 차남의 경우는 상속 후에 거의 왕래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할 때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자주 들락날락 거리고 전화도 하더니 상속하고 나니까 발길을 뚝 끊어. 바쁘다나... 작은 아들은 아예 안와. 내 생일때도 안 왔더라고.”). 또한 장남과 차남간에도 왕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녀가 부모의 재산상속 결정에 얼마나 많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가족간 유대관계는 경제력 분배(재산상속)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내 권력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상속 후에 부모자녀간의 권력구조와 부부간의 권력구조에서 피상속인(상속을 한 이)의 상대적 권력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속전과 달리 상속 후에 피상속인은 가족간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함과 함께 가계내에서 상대적 무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산이 가고나니 용기도 없어지고 완전히 노인이 된 것 같아. 재산 없으면 부모 대접도 못 받고 사는게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니 그게 어느정도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상속 하며, 적잖은 일을 겪다보니 이전에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다는 걸 알았어. 자식들이 그렇게 재산에 예민할줄도 몰랐고, 그걸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일줄은 생각도 못했으니까, 마누라도 많이 달라졌어. 이전같이 내뚝을 따라주지도 않고, 별 상의도 안하고. 내 자리가 점점 줄어들는 느낌이고 보니 말도 줄어들고 마음이 한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아.”). 이는 재산권의 이양이 가족관계변화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산권 이양의 의미에 권력 및 지위권 이양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피상속인은 상속 전에 가졌던 기대 즉 상속을 하고 나면 타 가족원들의 관심과 대우가 이루어질 거라는 것과 달리 가족간의 불만족과 갈등이 심화

되고 자녀들의 관심과 왕래가 줄어들어 오히려 상속 후에 자신의 가계내 위치가 더 약화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으며, 또한 자녀와의 관계 소원, 상속 후 자녀로부터의 일정한 보조금의 불이행에 노후생활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상속을 통해 나타나는 피상속인(부모세대)의 감정변화

1) 상속 전 단계에서의 피상속인의 감정

상속을 하기 전에 피상속인은 상속할 재산에 대한 뿌듯함을 표시하였는데, 이는 재산상속에 금전적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 즉 피상속인의 인생이 함께 감정이입이 된 복합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 저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정리하다보니 헛살지 않고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 싶은게 마음 뿌듯했지... 내가 살아온 삶에 금지가 생기고 뭔가를 이루고 가는 것 같았어. 자식보기도 떳떳한 아비의 삶으로 보일 수 있고 재산이란게 꼭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이와 함께, 상속을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심정적인 착잡함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것은 재산상속이라는 것이 가족생활주기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행해지는 가계재정으로 피상속인에게 심리적으로 노년기에 접어들도록 하는 하나의 큰 재정적인 사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상속진행단계에서의 피상속인의 감정

상속을 진행하면서 피상속인은 상속전 예상과 달리 일어나는 가족간의 갈등상황으로 인해 가족원에 대한 실망감과 함께 엄청난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육체적인 고통까지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난 우리 집안을 남한테 이야기 할 때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 했다우. 실제로 남들과 비교해봐도 자식들이 잘 커 줬고. 별 부러울게 없었지. 근데 재산을 넘기면서 많은 걸 느꼈어. 남들이 더러 재산주며 마음 상한다 이야길 들었어도 내 자식은 안 그럴줄 알았어... 꽤심해서 화가 나는게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 “불면증에 머리가 어찌나 아픈지... 혈압이 너무 높아 약으로 겨우

살았지.”). 특히 피상속인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고려 없이 재산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 되는 것에 실망감을 표시하였으며, 자녀들이 상속될 재산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단순히 미래에 자신이 소비하거나 투자할 금전, 자산으로만 여기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었다. (“부모가 재산을 넘길때는 그 부모의 삶이 뻥 재산 이상의 것을 자식한테 주는거구나를 알아야 해. 자식은 아무 생각없이 넘죽넘죽 받는데 그러면 안되지. 노력하지 않고 버는 돈이라고 마구 다루어서도 안되고 마구 써 버려도 안되지. 근데 자식들은 생각이 그렇지 않아. 얼마가 오고, 얼마를 받아 쓸 궁리에만 바쁘지.”).

이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상속에 대한 의미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피상속인은 상속될 재산에 대해 금전적 이상인 복합적 의미를 부여하는 반면, 상속인은 단지 미래에 효용을 줄 수 있는 금전적 의미로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산상속의 의미 차이로 인해 자녀들이 재산상속을 받았을 경우 상속으로 증가한 자산만큼 소비성향이 커

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보이고 있는데, (“돈 없다가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돈 아끼던 사람들도 아마 그전보다 많이 쓰게 될걸. 우리 아들들도 마찬가지. 솔직히 많은 돈을 준 것이니 얼마나 풍족하게 느껴지겠어. 쓸데없이 돈을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 이번에 상속을 하고나서 어떻게 하나 두고보니 해외여행에 다 집을 큰집으로 옮긴다 하지 않나. 돈 귀한줄 모르고, 마음에 안 드는게 한 두가지가 아니야.”). 이것은 부모로부터의 상속이 자녀세대의 사회경제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녀세대의 소비가 증가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상속 후 단계에서의 피상속인의 감정

상속 후에 나타나는 피상속인의 대표적인 감정은 무력감으로, 갈등구조하에서 이양된 재산권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육체적인 변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재산상속 즉 경제권의 이양으로 인한 시원

<표 5> 재산상속으로 나타나는 단계별 가족관계 및 감정의 변화

	가족·재정관계 변화	피상속인의 감정 변화
상속 전(前)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 원만한 편(표면적 문제 없음) ■ 자녀들의 가정 대소사일(장남 역시) 관여도 낮음 ■ 자녀와의 왕래 빈도수 적음 ■ 자녀로부터의 금전적 보탬은 없음. 오히려 결혼한 자녀에게 재정적 도움을 주고있음 	상속할 재산에 뿌듯함 착잡함
상속 진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들의 상속에 대한 민감한 반응 → 잦은 왕래 ■ 상속결정단계 - 배우자 및 자녀와의 갈등 (배우자 : 가정의 일방적 상속결정에 불만 자녀 : 장남우대 불균분 상속에 불만 표시) ■ 자녀간 불만표시 차이 → 차남 : 강한 불만 딸 : 섭섭함 표시 뿐 대체로 순응 ■ 부모와 자녀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견해차 (부모측면 : 인생 등 감정이입이 된 복합적 의미 자녀측면 : 미래에 소비, 투자 효용을 주는 단순한 금전적 의미) ■ 상속 후 자녀로부터 일정 액수의 보탬을 기대 	가족간 갈등에 의한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 실망감 육체적인 불편함
상속 후(後)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원과의 관계 소원 ■ 자녀들의 왕래가 급격히 줄어들음 ■ 형제간 관계 소원 ■ 피상속인의 가계내 상대적 권력 및 지위 약화 ■ 자녀로부터 보조금 지원이 없음 	무력감 허탈감 장래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

섭섭함과 허탈감이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었으며, (“다 끝나고 나니 시원하더라고. 이걸 시원섭섭이라 하나... 뭐 그런 것 있지? 워낙 힘든 무게의 짐을 벗고난 기분같은 것 있잖아. 그러면서도 가슴 한 구석이 허허더라고. 허전한거지. 맥이 빠지더라구. 막상 상속을 하고 나서 재산이 떠나고 나니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 아니 허전하다기 보다 지탱하는 기둥이 빠져나간 기분이 들더라고”), 재산상속 후 피상속인(부모세대)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무관심과 가계내 권력 및 지위약화로 인해 무력감과 함께 앞으로의 노후생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 기운도 없고, 소심해지고 용기도 없고 완전히 노인이 된 것 같아. 자식들한테도 더 이상 바랄수 없는 노인네 취급이나 당하는 것 같고, 한마디로 속 없는 껌대기지.”)

이러한 현상은 상속전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많은 감정적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재산상속이 가계내에서 특히 피상속인(부모세대)에게 가지고 있는 의미와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즉 재산상속은 단순히 세대간 재산권의 이양 뿐 아니라 가족관계 및 노후경제생활에도 다양한 영향을 끼쳐 재산상속후의 노년가계의 생활전반을 변화시키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V. 결 론

가족생활주기에서 마지막으로 행해지는 가계재정관리인 상속은 상속의 시기, 내용, 방법, 동기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노후생활 뿐 아니라 타 가족원들의 경제생활 및 가족관계에도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가계내 재산상속이전이 많이 행해지는 우리 나라의 경우 재산상속에 의한 가족간의 갈등과 이에 따른 경제구도와 가족관계구도의 변화와 문제를 어느 가계에서나 접하게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대책강구는 되어 있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의 가계내 재산상속은 간단한 면접기법과 설문지법을 이용한 실증적 연구가 주로 행해짐으로써 재산상속 의식 및 단편적인 실태에 관한 결과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실증적 연구기법

이 가지는 한계로 인해 재산상속에서 나타나는 가족내 미묘한 감정의 표출이나 갈등 그리고 상속결과에 따른 가족관계 및 경제관계의 변화, 가족간 권위-역할구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결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족내 재산상속을 통해 나타나는 가족문제와 경제적 문제(가계재정관리 측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가계내 재산상속이전 경험이 있는 피상속인인 부모세대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인 Ethnographic 면접기법을 실행하였으며, 그 결과 사전상속을 통해 나타나는 상속에 관한 실증적 태도와 그 이유 그리고 사전상속단계별(상속전단계, 상속진행단계, 상속후 단계) 가족관계변화와 피상속인의 감정변화에 관한 연구 결과를 얻게 되었다.

피상속인은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및 상속내용에서 장남우대 중심의 상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인의 범위 선정에서 상속이라는 의미가 배우자는 노후대책 마련과 고마움의 표시로, 딸은 교육과 결혼자금 지원이라는 의미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속분에 있어서는 아들간에 차등을 두어 장남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주었으며, 상속내용에 있어서는 자녀 중 자산관리면에서 안전성이 있는 자녀에게 상대적으로 비중있고 중요한 상속내용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불균분 재산상속은 상속과정에서 가족간의 갈등을 일으켜 가족구성원간의 급격한 유대관계를 약화시켰으며, 피상속인은 재산상속을 통해 권위 유지 및 노후보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가족간의 갈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무력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재산상속은 크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부모세대측면에서의 재산상속이란 부모의 권위와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노후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가계재정관리로 볼 수 있다.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우리 나라의 사회에서는 그리고 전통적인 효 개념이 약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재산상속을 부모의 권위와 세력의 유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에서 상속단계별로 달라지는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관심의 태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재산상속은 가계내 부모의 권위 유지와 세력을 유지하는 물적인 교환 수단임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재산상속의 방법과 시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장래 노후생활이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결과에서 피상속인은 재산상속시 구체적인 노후계획 없이 재산상속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상속을 많이 받은 자녀(특히 장남)에게 노후생활 보장을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비계획적인 재산상속은 상속으로 인해 가족간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부모세대에 심각한 심리적 타격을 줌으로써 기대했던 노후생활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노후설계와 함께 재산상속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연수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적정의 자금을 구축한 후에 재산상속계획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러한 재산상속계획이 피상속인(부모세대)에게 상속후 나타나는 노후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녀세대측면에서의 재산상속이란 부모부양의 의무감이나 가계계승의 의미보다는 단순히 장래 상속후 사회경제적 적응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연구결과에서 피상속인은 자녀에게 재산상속뿐 아니라 자녀교육에의 투자(유학 자금 포함), 결혼자금 지원, 주택구입비 지원, 사업비의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자녀에게 재산을 전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재산상속을 포함한 세대간 자산의 이동의 분배율과 분배내용에 자녀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반면, 부모부양이나 가계내 대소사 일에는 참여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자녀들은 재산상속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경제력 지위 향상력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욕구는 강한 반면 부모에 대한 의무감이나 가계계승 의식은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재산상속에 대한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간

의 기대감의 불일치가 가족간의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즉 부모세대에서는 세대간 재산상속이라는 의미가 후손을 통한 자산의 유지, 노후보장, 권력 유지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반면, 자녀세대에서는 장래 사회경제력 지위 향상의 수단인 경제적 개념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재산상속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력의 분배라는 객관적인 지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간의 유대관계, 피상속인의 향후 노년생활 예측 및 상속인의 미래 경제생활 예측, 권력의 전이 등과 같은 복합적인 가족문화 지표를 의미한다. 따라서, 재산상속은 가계내 재정관리 부분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재무계획 수립과 함께 계속적인 향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인 및 가계의 특성, 상속동기, 재산상속액, 상속인의 특성, 재산상속에 따른 문제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계내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상속을 통해 나타나는 가족간의 갈등소지를 최대한 감소시키며,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에게 심리적, 경제적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적정수준의 재산상속 재무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재산상속재무계획은 가계별 적절한 재산상속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부모세대의 노후설계와 자녀세대의 경제관리 능력 배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가계경제의 재산상속에 관한 연구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으며, 부모세대의 노후설계와 자녀세대의 경제적 복지를 계획하고 개선시키는 정책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가계내 상속에 관한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피상속인의 측면에서 바라본 재산상속에 대한 태도 및 근거 그리고 상속결과 및 가계에의 영향력을 살펴봐왔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재산을 받은 상속인의 측면에서 재산상속이 갖는 의미와 영향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재산상속이 자녀세대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크므로 향후 연구에서 상속이 자녀세대에게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가계경제

관리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가계 상속연구를 이해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재산상속은 개인 및 가계의 특성, 상속동기, 유산상속액, 상속인의 특성, 재산상속에 따른 문제점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개인이나 가계가 재무계획을 수립하고 재산상속계획 및 재산상속액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가계의 재정문제를 상담하는 재무상담가 및 가족문제를 상담하는 가족상담치료사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재산상속 및 재산상속의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후속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대구지역 2명의 면접참여자에 대해서 Ethnographic 면접기법을 이용한 질적인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각 면접참여자의 상속에 대한 세밀하고 깊이 있는 조사는 가능하지만 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적은 수의 면접참여자에서 오는 일반화의 한계점은 향후 연구에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정량적인 분석을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엘림(1991). 개정가족법과 가족법 개정운동에 관한 연구(한국여성개발원 연구 보고서 200-3). 한국여성개발원.
- 2) 김종호(1985). 농촌가정의 재산상속에 관한 연구: 경산군 용성면 도덕 1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3) 김주수(1960). 농촌의 가족과 상속 - 공주군 우성면의 실태-. 경희법학 3-1, 85-89
- 4) 문영소(1996). 한국가족의 상속의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박부진(1994). 한국농촌가족의 문화적 의미와 가족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박재간(1990). 노후의 재산상속과 재산관리. 노인생활 78.
- 7) 배종열(1997). 현대 한국가족의 재산상속관행: 대구시 남자 가구주를 대상으로. 경북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8) 손병돈(1998). 가족간 소득이전의 결정요인 -부모와 기혼자녀간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9) 신영호(1987). 공동상속의 법적구조에 관한 연구-한국공동상속법의 성격조명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0) 여중철(1980). 제사분할상속에 관한 일고.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연구회 인류학 연구 제 9집, 21-54.
- 11) 양희수(1967). 한국농촌의 촌락구조.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 연구소.
- 12) 유창조·김상희(1994). Ethnographic 접근방식을 통한 쇼핑행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확장된 개념, 감정의 다양성, 동기의 다양성. 소비자학연구, 45-61.
- 13) 이효재(1988). 가족연구의 관점과 쟁점. 서울: 까치
- 14) 장현섭(1993). 한국사회는 핵가족화되어 가고 있는가?. 한국 근현대 가족의 재조명. 한국 근현대 가족의 재조명. 한국사회사 연구회 논문집 제 39집. 서울: 문학과 지성사, 42-80.
- 15) 최재석(1986). 1940년대 전후의 농촌가족의 상속 실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편. 한국사회의 변동과 발전. 법문사, 457-468.
- 16) 한남제(1997). 한국가족제도의 변화. 일지사, 1997.
- 17) 홍공숙·김순미·김연정(1995). 미국노인의 유산 상속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3권 2호, 45-55.
- 18) Becker, G.S.(1974). A Theory of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6), 1063-94.
- 19) Becker, G.S.(1991). A Treatise on the Family. Harvard University Press.
- 20) Becker, G.S. & Tomes, N.(1979). An Equilibrium

- Theory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 no. 61, 1153-89.
- 21) Belk, R.W., Sherry, J.F. & Wallendorf, M.(1988). A Naturalistic Inquiry into Buyer and Seller Behavior at a Swap Mee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4(March), 449-530.
- 22) Bernheim, B.D., Shleifer, A. & Summers L.H.(1985),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3(6), 1045-76.
- 23) Bernheim, B.D. & Stark, O.(1988). Altruism within the Family Reconsidered: Do Nice Guys Finish Last?. *American Economic Review* 78, 1034-45.
- 24) Hurd, M.D.(1987). Saving of the elderly and desired bequests. American Publishing Company.
- 25) Hurd, M.D.(1989). Mortality risk and bequest. *Econometrica* 57, 779-813.
- 26) Lincoln, Y.S. & Guba, E.G.(1985). *Naturalistic Inquiry*. Sage Publications Inc.
- 27) Mark O.W.(1994). Inheritance and labor supply. *Journal of Human Resources* 29(4), 1205-1230.
- 28) Mark O.W.(1997). Inheritance, steady-state consumption inequality and the lifetime earnings process. *The Manchester School of Economic and Social Studies* 65(4), 466-511.
- 29) Maria G.P.(1998). A reexamination of the strategic bequest mo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6(2), 423-446.
- 30) Sherry, J. F.(1990). Dealers and Dealing in a Periodic Market: Informal Retailing in Ethnographic Perspective. *Journal of Retailing* 66(Summer), 174-200.
- 31) Spradley, J. P.(1979). *The Ethnographic Interview*.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 32) Sussman, M.B., Cates, J.N. & Smith, D.(1970). *The Family and Inheritance*, New York ; Russel Sage Foundation.